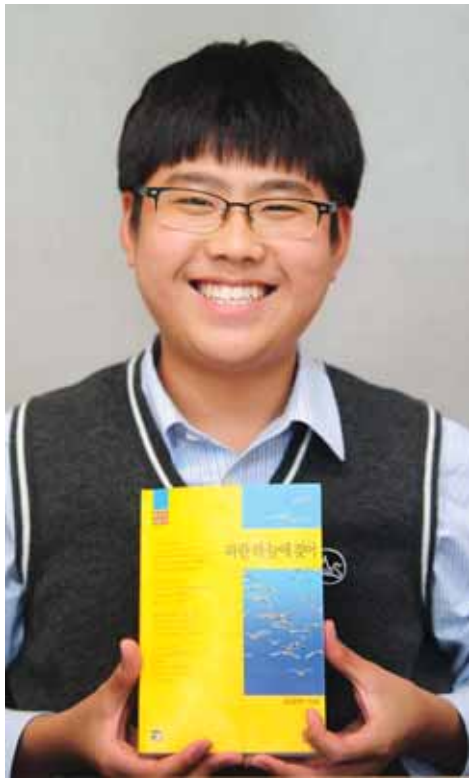


People & Life

“팍팍한 삶에 지친 이들에 힘이 되는 詩 선물할래요”



호남예술제 출신 문성고 송상혁군 시집 ‘파란 하늘에 젖어’ 출간

공부 때문에 연성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까지 휴대폰 게임만 할래, 책 좀 봐라, 숙제 안할래.” 부모들과 아이들의 전쟁은 매일 끊이지 않는다.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책 보고 공부하는 아이’는 모든 부모의 바람이다.

문성고 1학년 송상혁군의 부모는 이런 면에서 참 행복할 듯하다. 문군은 현재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의 예술영재 문예창작반 심화 과정을 다니는 ‘엄친아’로,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전형적 ‘자기주도학습형 아이’다.

TV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책을 꺼내 읽는다. “흔히 읽어서도 읽고 속재를 하다가 뭔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 때에도 책을 집어든다”는 게 송 군 어머니 얘기다. 여기에 시간 되면 자발적으로 일기장도 꺼낸다. 일기는 고등학교에 다니기 전인 지난해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자꾸 쓰다 보니 글 쓰는 실력도 부쩍 늘었다.

그래서인지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다녔다. 제 54회 호남예술제 중·고등부에서 최고상(2006년)을 받았고 광주교육청 재능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2009년), 제 3회 바기문 전국 백일장 UN평화대상을 수상했다. 2010년엔 자랑스런 광주학생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지난 2008년엔 초등학교 6년간 모았던 일기를 엮어 ‘엄마 때문에 못살아’라는 책도 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파란 하늘에 젖어’(코리아·8000원)라는 시집까지 출간했다. ‘나무·길·하늘·강’, ‘겨울바다와 갈매기’, ‘역사의 꽃대가 되어’ 등 5가지 소주제로 나눠 각각 13~15편씩 모두 70편이나 실었다.

“물레 먹는 아이스크림” 등 뜻뜻함이 묻어나는 시를 비롯해 ‘삶 이야기’ 등 고등학생치곤 성숙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적지 않다.

학교 다니며 틈틈이 썼다는데 그렇게 쉽게, 마음먹은대로 써질까.

“일기를 매일 썼던 게 가장 좋은 훈련법인 것

같아요. 글을 자주 쓰지 않았다면 시 쓰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책 읽는 것, 신문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옆에서 목 윗때까지 책을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인지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좋아진 것 같아요.”

옆에서 아이 재능을 알아보고 적극 힘을 실어준 엄마의 노력도 힘이 됐다는 것.

엄마는 “아이가 자라면 대화하기도 힘들어진다고 해 어려서부터 아이와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주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래 희망보다 한창 학업을 쫓아다니느라 발걸음이 바빠지는 시기, 송군은 벌써 시인의 심리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확실히 세웠다.

“힘들 때 한 번 읽으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시를 써 팍팍한 세상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김지용기자 dok2000@/사진=최현배기자 choi@

담양중 NIE동아리, 광주일보 현장 체험학습



담양중(교장 김성희) NIE동아리 교사·학생 등 12명은 11일 광주일보를 방문, 신문편집 및 제작과정과 방송 제작과정에 대해 현장 체험학습을 했다. /N명기자 mjna@kwangju.co.kr

동구 선관위 ‘1인 3표 동시선거’ 투표체험



광주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영)가 11일 7080총장추제가 열리는 총창로에 ‘1인 3표 동시선거 투표체험관’을 설치하고 1인3표 및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 동구 선관위 제공>

전남대 의과대학 정명호 교수 ‘분취의학상’ 본상 수상

전남대학교 정명호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제정한 최고 권위의 ‘분취의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22회를 맞은 분취의학상은 대한민국 노벨의학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고 오래된 의학상으로서, 고종황제의 주치의이었던 독일인 의사 분취(Wunsch) 박사의 이름을 딴 의학상이다. 대한의학회에서 매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선정하며 본상 1명, 젊은 의학자 2명에게 수여하며 상금은 본상 5000 만원, 젊은 연구자상 2000 만원이다.

정명호 교수는 최근 10년간(2002~2011년) 국내외 학회지에 총 548편(국제학회지 265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대한내과학회 및 심장학회에서는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의학자이다. 특히,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혈소판 응집억제제 부착 스텐트를 개발, 미국심장학회지에 게재해 주목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

노벨화학상 연구진에 한국인 과학자 안승걸 교수 부부

올해 노벨화학상을 차지한 로버트 레프코위츠(69) 미국 듀크대 교수의 연구진에 한국인 과학자가 몸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화제다.

안승걸(44) 교수와 안 교수의 부인인 김지희(44) 박사가 그 주인공들이다.

안 교수는 서울대 분자생물학과(옛 동물학과) 87학번으로 1997년부터 15년간 스승인 레프코위츠 교수와 호흡을 맞춰왔다.

서울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96년 듀크대 박사 과정에 입학해 레프코위츠 교수 지도로 2002년 세포 수용체의 작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과정을 거쳐 한국의 연구교수 격인 주니어 फै컬티(Junior Faculty)로 재직 중이다.

김지희 박사는 이화여대 생물교육학과 87학번으로 서울대 분자생물학과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레프코위츠 교수 밑에서 선



올해 노벨화학상을 차지한 로버트 레프코위츠(69·왼쪽) 미국 듀크대 의대 교수와 그의 수제자인 안승걸(44) 조교수. 임연구원(시니어 스태프)으로 활약하고 있다. 안 교수는 스승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11일(한국시각) 전화 인터뷰에서 “랩(연구소)에 너무 많은 전화가 걸려온다”며 학교가 축제 분위기로 전했다. /연합뉴스

문학박사 송지현 변호사 광주 첫 여성 단독사무실 개소

문학박사 학위를 가진 변호사가 광주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생인 송지현 변호사(51·사진)는 전남대 사범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 ‘1930년대 한국소설에 있어서의 여성자아정립양상 연구’를 주제로 1991년에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입학 당시에도 전국 최고령 입학자로 화제를 모았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6개월간 법률중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송 변호사는 최근 광주에 단독 사무실을 개업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한 여성 단독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주)에스앤에스비전, 서구에 단감 300상자 후원



(주)에스앤에스비전(대표 이상찬)은 11일 서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서구민 한 가족되기’ 후원품으로 단감 300상자(9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광주도시공사-누기의원 무료건강검진 업무협약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11일 누기의원(원장 홍성범)과 영구임대주택 입주노인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대-美 웨스턴일리노이대 어학연수 협력 논의



김혁중 광주대 총장은 최근 점선실에서 자매대학인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WIU)의 국제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광주대학생들의 하계 미국어 학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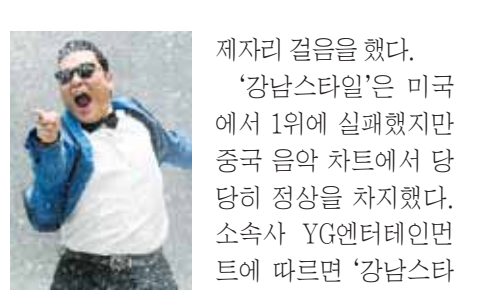
사이 ‘강남스타일’ 빌보드 3주째 2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의 ‘강남스타일’이 이번 주에도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빌보드 매거진인 빌보드 비즈는 11일(한국시각) ‘강남스타일’이 메인차트인 ‘핫 100’에서 3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팝그룹 마론 5의 ‘원 모어 나이트(One More Night)’는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해, 4주 연속 정상에 자리를 지켰다.

세계를 말춤 열풍으로 몰아간 ‘강남스타일’은 4주 전 64위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진입한 이후 한 주 만에 11위에 진입했고 이후 다시 2위로 수직 상승하면서 곧 정상에 오르는 듯 했으나 정상 자리를 한 계단 앞에 두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 ‘강남스타일’은 미국에서 1위에 실패했지만 중국 음악 차트에서 당당히 정상에 차지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강남스타일’은 이날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가 운영하는 일간 음악 차트(‘톱 500’)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 가수만이 차트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그동안 불화설로 군요를 치른 싸이는 김장훈과 극적으로 화해했다. /김일환기자 kih8@연합뉴스

한인 혼혈 출신 하인스 워드 샴 할리우드서 영화로 제작

미국 프로 풋볼리그(NFL) 톱스타이던 한인 혼혈 출신의 하인스 워드(사진)의 삶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진다.

하인스 워드 매니저인 대니얼 서씨는 11일 “하인스 워드의 출생 이야기는 물론 자신이 직접 털어놓기 어렵던 인종 차별과 혼혈인의 삶 그대로를 영화로 꾸미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가 계약을 제안해왔으나 심사숙고 끝에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원미디어엔터테인먼트’(대표 제이슨 윈)와 계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슨 윈 대표는 “250여명의 제작비를 들여 만들어 영화는 할리우드식 휴먼 드라마를 표방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독일인 베르너 사세 교수 영암 한국건축박람회 홍보대사에

영암군은 11일 베르너 사세(독일) 전 한양대 석좌교수를 ‘제2회 대한민국 한국 건축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베르너 사세 교수는 한옥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한국의 문화를 유럽권에 알리는 한국학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대왕의 ‘월인전강지곡’을 직접 번역, 유럽에 소개하기도 했다. 은퇴 후 한국에 정착하며 담양군의 한옥에서 지낸 즐거운 경험을 언론 등에서 알렸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이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학측

- ▲박재양(국제 케미칼 대표이사)·김현욱씨 장남 철만(국제 케미칼 팀장)군 양한중(부성 엔터테인먼트 대표)·조숙현씨 장녀 초롱(동아여고 교사)양=13일(토) 낮 12시 30분 신양파크호텔 그랜드 볼룸.
- ▲김복목·신인숙씨 장남 형준군 서현기(광주송일고등학교장)·김정희씨 차녀 시내양=13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1층 황실.
- ▲박평식(광주시청 사무관)·조은희씨 장남 하은(전남경찰청 경위)군 김병천(종근당)·전관옥씨 차녀 정원(광주시교육청)양=13일(토) 오전 11시 S타워컨벤션 메리골드홀.
- ▲한숙자씨 장남 임광군 최근후(전 무등일보 논설위원·경기도 구리교회 목사)·안춘자씨 차녀 연정양=13일(토) 오후 1시 광주 북구 매곡동 광주교회.
- ▲나일삼·조점씨씨 차남 병욱군 김형호·이경애씨 차녀 해진양=13일(토) 오후 1시 30분 삼무리츠 컨벤션웨딩홀 아이비홀.
- ▲허성원·유점씨씨 장남 경민(쌍용자동차)군 김덕선(남두투데이 사장)·박영숙씨 장녀 도희양=13일(토) 오전 11시 10분 아이리스웨딩홀 베스홀.
- ▲유홍성(광주시청 대변인)씨 장남 민환군 이찬화(능주고등학교 교사)·김충희씨 장녀 가희양=14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 홀리데이 컨벤션 호텔 3층 로즈홀.
- ▲최수환·김순자씨 장남 경태군 이동원(건설업 사장)·정경숙씨 장녀 수연양=20일(토) 오후 1시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 피로연=12일(금) 오후 6시 메리어트웨딩홀 본관 2층 컨벤션홀(상록회관 옆)

중친회

- ▲전주리씨 광주·전남지원 청년이화회10월 월례회의(회장 이의준)=16일(화) 오후 7시 도지원회의실 3층 062-225-5636, 5631.

동창·동문회

- ▲전남고 총동문회(회장 이명엽)등반대회=14일(일) 오전 8시 30분 증심사 문빈정사 집결, 무등산 산행, 푸짐한 상품 제공. 010-2604-2868.
- ▲광주고등학교총동문회(회장 송영수) 2012년 光高人한미당=14일(일) 오전 9시 모교운동장 062-234-9300.
- ▲순천 송남중 제2회 총동문회(회

장 김성봉 한마당축제 = 21일(일) 오전 10시 순천 송광체육공원, 연락처(사무국장 양국진 010-2078-5355)

알림

-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 =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 ▲습관성도박(경마, 주시,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임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 ▲프르네 학습증진컨설팅 저소득층자녀 무료상담 = 학교부적응, 성적부진, 성적저하, 교육관계, 정서장애, 게임중독. 010-6392-7137.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 = 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으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 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한다.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모집

- ▲요양보호사 무료교육생 = 여성가장인 분들 무료교육, 광주·전남 요양보호사교육원(전남여고 건너편) 062-222-2757, 0102.
- ▲대학생 봉사단 = 자원봉사 상설 체험·홍보, 손발맞사자, 지역아동센터·돌봄교실지원, 공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으로 광주지역 거주 대학생,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6.
- ▲외국어전문봉사단 =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통역 봉사활동으로 외국인과 회화가 가능한 분,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및 기타 외국어. 광주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4.
- ▲심청재가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 판정 수시상담, 고령, 노인성 질환(치매·중증·노환), 청소, 취사, 가사지원, 신체활동 지원, 방문목욕(차량목욕), 돌봄서비스 등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야간 및 휴일 상담. 062-264-7748, 018-690-5356.

부음

- ▲박정례씨 별세 김영수·영주씨 모친상=발인 13일(토)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 ▲김정환씨 별세 채호·규섭·미경·미숙씨 부친상=발인 12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叩

故 沈 炳 錫 翁 (남/82세) 子/子: 孫心錫 / 孫慶錫 / 孫錫 / 孫錫 女/女: 孫心蘭 / 孫心蘭 / 孫心蘭 / 孫心蘭 ·호실: 4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金 煥 勳 翁 (여/71세) 子/子: 孫心錫 / 孫慶錫 / 孫錫 / 孫錫 女/女: 孫心蘭 / 孫心蘭 / 孫心蘭 / 孫心蘭 ·호실: 101호 ·장지: 영락공원
故 李 在 敬 翁 (남/58세) 子: 李在錫 女: 李在錫 ·호실: 301호 ·장지: 보성명예선영	故 李 在 錫 翁 (남/58세) 子: 李在錫 女: 李在錫 ·호실: 301호 ·장지: 보성명예선영

孝 金 浩 宗 喪 禮 告 白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